

여수광양항만공사, 안전·자동화 혁신… 스마트항만 전환

국내 항만 첫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위험징후 감지해 사고 전 선제 대응
4분기부터 14종 재난·사고 관리
자동화 테스트베드에 7724억 투입
피지컬 AI 집목해 차세대 항만 구축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국내 항만 가운데 처음으로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했다.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 체계 구축이다. 공사는 또 피지컬 AI(인공지능 기술)를 물리적 환경에서 구현(구현)을 적용해 하역장비 등의 안전자동화를 지향하는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검증 무대)' 구축사업도 최근 개시했다.

조기경보 시스템은 각종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경보 체계를 가동하는 게 핵심이다. 공사 관계자는 "집단지성에 의한 조직적·집단적 대응력을 발휘해, 사고 발생 전 조치를 강화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라고 설명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국내 항만 중 최초로 이를 적용했다. ▲항만사고 위험징후 감지 ▲조기경보 발령 ▲사고예방대책회의 ▲사고위험 선제 조치 등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위험징후가 높아지면 현장관리자는 사고예방대책회의를 주관하게 된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광양항.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리자가 현장에 개입하는 등의 선제적 사고예방조치를 실시해 항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사전 차단 및 예방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공사는 지난달 시범운영으로, 항만도로 교통사고 및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사고에 대해 이 체계를 적용한 바 있다. 이달 중에 조기경보 발령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 한 뒤 오는 4분기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포함된 항만 특화 조기경보 시스템에는 그간 항만에서 빈번히 발생하거나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10개 분야 14종

의 주요 사고에 대해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폭염과 한파, 풍수해, 화재, 도로교통 사고, 항만시설 파손,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관호 공사 사장은 "여수·광양항의 안전은 항만경쟁력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는 경영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번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및 운영을 통해, 사장을 포함한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공사의 집단지성이 작동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위기대응체계를 정교하게 시스템화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모두가 안심하

고 이용할 수 있는 항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앞서 지난달 말 광양항에서 '항만자동화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에는 오는 2029년까지 총 7724억 원을 투입된다.

국산 하역장비, 컨테이너 이송장비, 항만 운영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진 완전자동화 컨테이너 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위치는 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부두이며 연간 136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규모의 하역능력을 지니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를 통해 국내 항만의

안정적인 자동화항만 도입 여건을 조성하고, 장비와 시스템 등 관련 국내 항만기술 시장을 창출해 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해운수산부가 발표한 '피지컬 AI(인공지능) 항만 전략'과 연계돼 있다. 해수부는 특히 광양항 테스트베드를 피지컬 AI 기술의 선제적인 도입과 실증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야드 운영 최적화를 위한 에이전트 AI 기술, 무인이송장비(AGV) 주행 구간의 균열·침하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기술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광양항 테스트베드는 단순한 자동화항만을 넘어 AI 기술이 도입된 차세대 스마트항만으로의 탈바꿈을 앞두고 있다.

최관호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광양항 항만자동화테스트베드는 단순한 하역장비 자동화를 넘어, 피지컬 AI 기술의 선제적 도입과 실증 집적화를 통해 광양항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줄 것"이라며 "스마트 항만의 미래를 제시하고 대한민국 항만기술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기후부·반도체업계, 재생에너지 해법 모색

삼성·SK·구글·ASML 등 간담회
재생에너지 수요·애로사항 청취
입지·시장·전력망 혁신방안 공유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구글, ASML 등 글로벌 반도체 및 빅테크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첨단산업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조달 해법 모색에 나섰다. 국내 투자를 늘려가는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글로벌 반도체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

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은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이고 가성비 높은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은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좌우하는 핵심 여건으로 떠올랐다.

이날 기후부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장지붕,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보급 확대 및 이격거리 개선 ▲국·공유지 활용

및 계획입지 등 입지제도 혁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을 통한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전환 ▲직접전력거래(PPA) 중개시장 개설과 같은 시장제도 혁신 ▲국가전력망 확충 등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산업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입지, 시장, 전력망 혁신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 세계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韓, 지하수 국제표준 주도권 잡는다

국립환경과학원, ISO 기술위 제안
내달 29일까지 회원국 찬반투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지하수 기술위원회(TC) 설립을 제안하고 회원국 투표를 이끌어내며 글로벌 지하수 표준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5일 ISO 정회원국 135개국을 대상으로 '지하수 기술위원회 설립' 찬성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온라인 기술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가뭄과 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안정적 수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관리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 인도, 영국 등 주요국은 지하수저류층, 인공함양, 지하수 예측모형(모델링) 등 자국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중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21년 환경분야 최초로 ISO 수문계측 기술위원회 산하 '지하수 분과위원회(SC)' 간사국을 수임한 이후 국제표준 활동을 주도해 왔다. 이어 기후위기 적응 기술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분과위원회를 상위 기구인 독립 '기술위원회(TC)'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ISO 중앙사무국은 지난 7월 7일부터 회원국 대상 찬반 투표를 시작했으며, 투표는 오는 9월 29일 종료된다. 최종 설립 및 간사국 지정 여부는 2027년 3월 ISO 기술관리이사회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기술위원회가 공식 설립될 경우 한국은 글로벌 지하수 자원 관리 표준화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며, 국내 우수 물 산업 기술의 해외 진출 문턱도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안전보건공단·동서발전, 발전소 안전 강화

고위험 공정 합동점검·위험요인 개선
협력업체 안전관리·맞춤교육 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동서발전이 '발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대규모 설비 및 고위험 공정이 집중돼 있는 발전산업에 대한 안전보건 기술 및 현장관리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은 25일 울산 중구 공단 본부에서 동서발전과 '전력산업 산재 예방 및 안전보건 상생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국가 기간시설인 발전소의 안전관리 제고를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발생 감축을 도모한다.

우선 도급·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



울산 중구 소재 산업안전보건공단.

계 구축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서발전 소속 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체협교육도 실시한다.

사고 위험이 큰 공정에 대해서는 합동

점검을 진행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한다. 발전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도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안전활동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성과 측정과 관련 제도 정착에도 협력한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역량과 전력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 분야의 안전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동서발전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TL, 신입직원 47명 공개채용

연구·행정 등 44개 분야 선발
자립준비청년 가점 올해 신설

국내 유일 공공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2026년 정규직 신입직원 47명을 공개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일반직 31명, 전문직 8명, 공무직 8명 등 총 47명이다. 채용 분야는 이공계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사무직 등 4개 직종 44개 분야다.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대상 가점을 신설했으며, 이전지역(경남·울산) 인재와

국가유공자 등 기존 우대 제도로 함께 적용한다.

지원서는 8월 24일부터 9월 8일 오전 11시까지 온라인 채용 누리집(https://ktl2026.careerlink.kr)을 통해 접수받으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12월 29일 입사할 예정이다.

이충원 KTL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번 채용을 통해 기관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역량 있는 인재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안전과 수출 경쟁력 강화,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KTL과 함께 기여할 우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